

2025. 10.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동물원장	여용구	02-500-7002
동물기획과장	김흥현	02-500-7701
관련 누리집 (메뉴)	http://grandpark.seoul.go.kr/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서울대공원, '토종동물 이어가기' 종보전교육 운영

- 세계동물의 날(10.4.)을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교육 '토종동물 이어가기' 진행
- 현장교육은 10.2(목)~10.4(토)까지 동물원 정문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운영
- 온라인 교육은 10.24.(금)까지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 종보전 교육영상 제공
-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 기대

- 서울대공원은 개천절 연휴를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교육 '토종동물 이어가기' 보전 교육을 운영한다.
 - 이번 교육행사는 세계 동물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여 시민의 토종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울동물원의 종보전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교육은 10월 2일(목)부터 10월 4일(토)까지이며, 1일 2회(10:30~11:30, 13:00~15:30)로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에서 열린다. 동물원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부스별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배우고 환경보호와 관련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다.
 - 토종동물 발자국 맞추기, 서울동물원 종보전센터의 토종동물 복원, 증식 활동의 연구 사례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본다.

-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타이페이 동물원과 협업하여 제작한 종보전교육 영상을 학습 자료로 제공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https://yeyak.seoul.go.kr/>)에서 10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영상에는 금개구리, 남생이, 저어새 등 한국토종 동물의 생태를 소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복원 사례가 담겨 있다.
- 한국 고유종뿐만 아니라 대만 고유종과 타이베이 동물원의 종보전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동물원 입장료는 별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자연학습팀(02-500-7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이번 교육행사를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이 선선한 가을을 만끽하며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에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UL
MY SOUL

SEOUL
ZOO

세계 동물의 날(10.4.) 기념

한국의 멸종위기종 보전 교육

토종동물 이어가기

일정

25. 10. 2.(목) ~ 4.(토)

시간

10:30~11:30 / 13:00~15:30
(11:30~13:00 휴게시간)

장소

서울동물원 정문광장(호랑이동상 맞은편)



토종동물 발자국 맞추기

- 우리나라 멸종위기동물에 대해 알아보자
- 발자국 보고 토종동물 맞추기

토종동물을 위한 약속

- 서울동물원의 종보전활동을 알아보자
- 실천 약속 지키기

토종동물 열쇠고리 만들기

-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 수달 열쇠고리 만들기

토종동물 알리기

- 한국호랑이, 반달가슴곰 포토존에서 사진찍기
- SNS에 알리기

세계 동물의 날 (World Animal Day) 이란?

WORLD ANIMAL DAY
OCTOBER 4

<세계 동물의 날>은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캠페인을 펼치는 날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5년 <세계 동물의 날>의 주제는 "동물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자!(Save Animals, Save the Planet)"입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 왜 중요할까요?
안타깝게도 밀렵과 불법 거래,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무분별한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등 여전히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



Asian Black Bear (*Ursus thibetanus*)

생태계 조절자

한반도 전역에 분포할 정도로 많았던 반달가슴곰은 용담을 노린 밀렵과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서식지의 훼손과 지속적인 밀렵으로 인해 한때 남한 전역에 5마리까지 줄어들었다가 2004년부터 지리산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매년 꾸준하게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잡식성이지만 소화가관이 육식동물과 비슷하여 식물성 물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풀과 열매를 그대로 배설합니다. 곰의 배설물에서 나온 열매는 발아율이 2배나 높아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퍼뜨려 숲을 풍요롭게 합니다.

서울동물원은 반달가슴곰의 생태계 복원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총 16마리 반달가슴곰을 지리산 종복원기술원에 보내는 등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립생태원(2023),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시베리아호랑이



Siberian Tiger (*Panthera tigris altaica*)

멸종된 한국 호랑이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일본인에 의해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고, 이후 남한 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의 개체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해수구제사업으로 개체수가 급감했고, 호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현재 한반도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개체수를 조절해 피해를 줄이기도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호랑이의 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항새



Oriental White Stork (*Ciconia boyciana*)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1950년까지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텃새였으며, 일부 개체군은 북쪽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국내에서 월동하였습니다. 1971년 마지막 번식쌍이 사라진 후에 천수만, 해남, 제주도, 순천만, 낙동강 하구, 대구 낙동강, 우포늪, 울산광역시 태화강, 사천시, 주문진 등 겨울철에 소수가 도래합니다. 민가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어 쉽게 남획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농약으로 인한 먹이자원 감소 등이 개체 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내 복원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입된 개체들의 경우, 전신주 및 전깃줄 충돌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수달



Eurasian-river Otter (*Lutra lutra*)

수생태계 지표종

수변부의 갈대가 있는 곳이나 식생이 풍부하고 먹이감이 많은 하천과 호수기에 살며, 물가에 있는 바위구멍, 나무뿌리 밑의 틈새 공간 등을 집으로 활용합니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만 양서류, 갑각류, 조류 등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야행성으로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달은 수생태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수달이 사는 강은 생태적으로 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수질오염, 어망에 의한 폐사 등이 위협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보온과 항수력이 좋은 모피를 노린 밀렵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서울동물원 종보전센터는 수달을 자원으로 방사하기 전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설치하는 등 수달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Spotted Seal (*Phoca largha*)

백령도를 찾아오는 손님

서해 백령도 지역에 약 300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산가로릴만과 전구동해, 남해 일원에도 분포합니다. 전 세계 18종의 물범 중 유일하게 한반도에 서식하는 종으로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8,000마리 정도가 서식했으나 모피를 얻기 위한 포획과 어업용 어구, 항구개발과 선박이동으로 인한 연안 오염,

서식지 파괴 등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류와 대형 플랑크톤, 대형 갑각류와 문어류, 두족류를 잡아먹습니다. 4~10월에 짝짓기를 하며, 3~4월에 1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기간은 약 11~12개월이며 3~4주 동안 어미가 젖으로 새끼를 키웁니다.